

1993년 여름, 난 '한국의 설록 홈즈'가 되겠다는 열망을 안고 영국 유학길에 나섰다. 그 열망의 뒤편에는, 최정예 경찰교육기관인 경찰대학에서 4년간 배우고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했던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이나 '부천 대학입시 시험지 도난사건'같은 대형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무능력자'라는 강한 자괴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말 다르고 풍토 다른 외국에서의 공부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나름 어릴 때 부터 영어 하나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쳐져 본 적 없고, 학기 시작전에도 영국 대학 측이 마련해 준 '학위과정을 위한 집중 영어연수' 까지 마쳤지만, 처음 3개월 동안은 교수와 영국 학생들의 난상토론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식 수업'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잠을 줄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날 수업 주제와 관련된 논문과 책을 찾아 읽으며 이해하고, 다음 날 수업할 주제 관련 자료를 찾아 예습하고 나면 새벽 2~3시. 조금 어려운 주제가 있는 날은 아예 밤을 꼬박 새우고 강의실에 가기도 했다. 식사를 할 때나 쉴 때는 늘 BBC 방송을 들으며 영국식 영어에 적응하려고 애썼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3개월 째 되던 날부터 세미나 시간에 교수와 학생들의 토론이 귀에 막 쑥쑥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매일 아침 강의실에서 어린 영국 남학생이 매우 빠른 말로 내게 똑같은 인사를 해 왔는데, 난 그 뜻을 모르면서도 그냥 "굿모닝"으로 응대하곤 했다. 그런데, 귀가 뚫리기 시작하자 그 말이 "너 오늘 아침 식사로 개고기 먹고왔니?" 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분노와 함께 수치심이 끓어올랐다. 마음 같아서는 쥐패주고 짐싸들고 귀국해버리고 싶었지만, 절대 그럴 순 없었다. '설록 홈즈의 꿈'을 이런 유치한 녀석때문에 접을 순 없는 일이었다.

당시 내겐 뭔가 치료제가 필요했다. 온몸이 파김치가 될 때 까지 뛰어도 보고, 축구, 농구, 테니스 등 운동에도 매달려봤지만 그 순간 뿐이었다. 그때 날 달래준 것이 음악이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가져간 김광석, 김현식, 산울림, 들국화 등의 가요 카세트 테잎들이 고마운 치료제 역할을 해 주었다. 하지만, 듣고 또 들어 테이프들이 하나씩 늘어서 워크맨 롤에 감기면서 더이상 듣지 못하게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열리는 동네 '카부츠 세일(벼룩시장)'에 가서 낡은 전축과 앰프, 녹음기, 스피커와 함께 비틀즈와 퀸 등 영국 대중가수들의 음반들을 사 왔다. 너무 좋았다. 좋은 곡만 골라 빈 테이프에 녹음해 시간이 날 때 마다 워크맨으로 듣고 또 들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가요나 팝 보다 더 울림이 있고, 가슴 아주 깊은 곳까지 찾아가 건드리고 위무해 줄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다. 그때 떠오른 것이 경찰대학 시절 친구가 클래식 문외한이었던 날 전도한다며 들려준 파헬벨의 캐논이 주었던 놀라운 감흥였다. 시내 음반 가게를 찾았다. 주인에게 파헬벨을 물으니 자신도 좋아한다면서 대화가 시작되었고, 당시 클래식을 잘 모르던 내 상황과, 애환이 깃든 내 심경을 살짝 내보이니 슬픈 눈으로 날 바라보던 그가 말없이 진열장으로 가 뽑아 준 음반이 알비노니의 아다지오였다. 파헬벨 음반은 비용을 지불했지만, 알비노니는 선물이라며 굳이 돈을 받지 않으려 해 할 수 없이 감사의 인사와 함께 그냥 들고 오게 되었다.

기숙사에 돌아가자마자 당연히, 원래 마음에 두고 찾아갔던 파헬벨은 제쳐두고, 알비노니를 전축에 걸었다. 아~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곡의 시작부터 느린 단조의 선율이 청각은 아예 무시하고 가슴 밑바닥으로 침입해 들어왔다. 곧이어 바이올린의 흐느낌이 본격적으로 내 감정과 정서를 후벼팠다. 배경에 흐르는 건반의 장중함은 아예 그동안 한번도 외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부분까지 흔들며 바이올린의 공격앞에 던져놓아 버렸다. 들으며 울고, 듣고나서 울고, 다시 들으며 또 울었다. 심지어 전축 바늘을 옮기며 곧 시작될 선율이 예상되면서 눈물이 흐르기까지 했다. 그러게 몇 번을 반복하니 가슴 속이 싸리비로 몇차례 쓸고 지나간 것처럼 아릿한 청량함으로 가득찼다. 아, 이렇게 바라 '카타르시스'로구나, 싶었다. 그 후로 시내 음반가게 주인은 내게 소중한 친구이자 치료사, 스승 역할을 해 주었다. 사라사테, 브람스, 에릭 사티, 라흐마니노프... 그가 추천해 준 음악들은, 마치 명이가 내려준 맞춤 처방처럼 하나같이 내게 카타르시스와 힐링, 희망과 의지를 주었다. 그 음악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난 영국의 그 음습한 기후와 속마음을 잘 보이지 않는 일부 영국인들의 가식, 보이지 않는 차별과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의 폭발, 정신적 장애 혹은 학업 중단 등의 돌발상황에 처했을 지도 모른다.

그 후, 박사학위 논문 작성이 지연되어 한국에서 곧 태어날 첫 아기의 출산도 지켜보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나 귀국 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할 때 마다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알비노니의 아다지오가 되었다. 물론, 당시 알비노니가 아닌 차이코프스키 혹은 파가니니, 베토벤이었어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었을 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만남에도 인연이 있듯, 음악 역시 마찬가지인듯 하다.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미인도 아니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내겐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고맙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알비노니의 아다지오가 그렇듯이. 요즘도 난 트위터 등 온라인 소통을 통해 사람들에게 많은 음악을 소개한다. 가요, 팝, 록, 영화음악 등 당시 사회 상황에 부합하거나 내 감정과 정서가 요구하는 음악에 간단한 감상이나 소개 글을 덧붙여 들려준다. 어떤 이들은 그런 나를 '트위터 DJ', 혹은 'DJ 표'라고 부른다. 온라인 DJ활동을 하면서, 클래식은, 그리고 알비노니는 아주 아껴서, 가끔씩만 소개한다. 소중한 것을 함부로 다루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클래식을 어렵게 생각하고 경원시하는 분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드려서 스스로 찾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클래식 짹'을 스스로 만나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이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입은 분들, 그 중에서도 가요나 팝 등 대중음악으로는 치료가 다 되지 않는 분들이, 나처럼, 자신에게 꼭 맞는 클래식 작품을 만나 진정한 치유와 위로를 받게 되길 기원한다.